

여량 珊瑚洞窟의 개발 타당성 연구

홍시환(동굴학회 명예회장)

변대준(동굴학회 조사실장)

- | | |
|-------------------|----------------------|
| I. 서론 | VII. 계획의 수행방향 |
| II. 개발계획의 필요성 | VIII. 개발계획지역의 입지와 배경 |
| III. 개발계획 수립의 목적 | IX. 지역의 지리적 특성 |
| IV. 개발계획의 방향 | X. 관광자원의 분포 |
| V. 개발여건 | XI. 기대되는 개발 타당성 |
| VI. 계획의 대상지역 및 범위 | XII. 결론 |
| VIII. 참고문헌 | |

I. 서론

본 연구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餘糧산호동굴 주변에 대한 개발타당성을 연구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연구는 개발타당성과 개발계획안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조사로 이루어진것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II. 개발계획의 필요성

본 정선지구는 그 주변이 높은 산지로 둘러쌓여 있고 더구나 험준한 산지지형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교통연락이 불편하여 이른바 폐쇄된 사회로 되어왔다. 또한 산지성 지형 때문에 광산업과 임업 이외의 근대산업의 발달에 불리하여 여태까지 낙후된 산촌사회를 겨우 유지하여 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격리되어 있는 후진적 지역사회개발로 농촌 생활의 현대화에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관광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있다.

산촌지역의 사회구조와 내륙 산간오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자연의 제약을 받는 재래식 산지 농촌 생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되도록이면 농촌과 근대화를 위한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조출하고 이들 지원의 효율적 개발과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III. 개발계획수립의 목적

본 지역의 당면한 지역사회 개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개발의 목적으로 본 개발계획을 시행하고자 한다. 첫째, 정선아리랑의 원류지인 여량 아우라지 지역의 전통을 계승한 민속적인 개발부흥에 그 목적을 둔다. 둘째, 이미 개발된 도시지역 및 도시화 지역과 산간오지와 유기적인 결합 개발로 농촌과 도시간의 생활 및 소득격차를 저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내륙 산간오지의 고립적 생활환경과 이습을 탈피하고 짐재적인 소득자원의 개발이용으로 주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복잡한 도시사회의 변잡성을 탈피하고 일시자마 대자연속에서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르는 자연인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섯째, 대자연의 환경은 그대로 보존 존속시키며, 일면 자연환경속에서 피로와 번뇌를 회복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IV. 개발계획의 방향

본 지역의 관광개발에는 일반적인 유흥관광보다 건전한 국민관광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속에서 자연의 섭리를 관찰 학습하는 자연 학습의 현자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따라서 산지의 개발에는 등산을 비롯한 심신단련과 자연을 관찰하는 자연학습원으로 개발하고 동굴은 탐험과 모험심의 배양은 물론 신비롭고 캄캄한 지하세계의 자연섭리를 관찰 이해시키는 동시에 지구과학적인 학술

이해의 현장으로 개발한다. 그리고 계곡은 정적 또는 동적인 휴식공간으로 개발한다.

V. 개발여건

본 정선지역은 다양한 지리적 요소가 구비되고 있는 지역으로 되고 있고 관광개발이 유리한 조건을 이루고 있다고 보겠다. 즉 이 지역은 여태까지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상위계획에 순응 개발을 새행할 수 있으며, 또한 주민소득면에서의 절대적인 소득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므로 시기에 맞는 개발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요소별로 본 개발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半論山 산지지형은 동쪽 사면이 느리고 서쪽 사면이 급한 절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완사면은 관광농원 및 휴양단지와 절벽지역은 등산코스로 적합하다. 특히 서쪽의 절벽 급사면은 河蝕崖의 절경을 이루고 있어 좋은 풍치자원으로 되며, 해발 1,000m 산정에서의 정상 전망은 매우 유리한 개발 여건으로 되고있다.

둘째, 산호동굴지역은 대형광장으로 되는 동굴로 특히, 동양에서는 지금까지 단 하나밖에 발견되지 않은 동굴산호의 전당으로 되고있다. 즉 희귀한 대형동굴 산호가 동굴의 전정과 벽면에 만발하고 있고 그밖에도 갖가지 동굴지형 지물들을 본 동굴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때문에 동굴학적 및 학술가치가 매우 높아 개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이루고 있다. 또한 본 동굴은 산삼을 캐는 심마니들이 정성을 드리는 산성한 도장으로도 사용되어온 유서깊은 전당이기도 하다.

셋째, 남한강 상류인 朝陽江과 그 지류들은 하천의 흐름이 잔잔하며, 강늪시와 수상벚노래에 매우 적합하고 더구나 뗏목놀이는 유서깊은 아우라지의 옛보습을 되찾게 할 수 있어 좋은 개발여건이 되고있다. 넷째, 여량일대의 계곡 지역은 柱狀節理가 발달된 기암절벽의 계곡지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많아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하천연안의 하안단구의 지면에서는 넓은 휴양공간을 얻을 수 있어 유원지 개발에 매우 적합하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 의한 양어장 江邊市場의 개발에 유리하다. 다섯째, 여량 시가지는 전통적인 민속촌락이 아니므로 재개발에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 더구나 철도와 도로교통의 요지로 되어 있는 교통입지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이주인구가 많아 2차, 3차적인 산업인구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지 개발과 전환에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은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이루고 있다.

VII. 계획의 대상지역 및 범위

본 개발 계획은 강원도 정선군 북면과 임계면에 속하는 여량 지역과 그 부근 일대를 개발 대상 지역으로 한다. 즉 해발 1,060m인 半論山 북쪽과 서북사면 일대에 해당되며, 총개발 해당면적은 북면 여량 4리 곰말지역이 1 km², 여량2리 녹구만이 지역이 2 km²이다.

VII. 계획의 수행방법

(1) 본 계획은 기발표된 상위계획에 의거하면서도 독창력을 가미한 지역계획으로 다른 관련계획들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개발목표를 설정한다.

(2) 강원지역의 각종자연 및 인문자원 그리고 문화자원 등을 관련시켜 개발하도록 한다.

(3) 향토색과 지역특성을 종합분석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개발한다.

(4) 지방유지와 학자들의 참여와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게 의도적으로 참가협역시키는 강향으로 개발한다.

(5) 관계기관과의 협노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규 등에 의한 검토를 마친 후 개발착수한다.

(6) 기본방침 수립후에 수릴규모의 적정기준을 정한 후 이에 입각한 시설을 배치한 다음에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7) 전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을 진행시키되 가급적 토착주민으로 하여금 투자를 권유하도록 한다.

(8) 연차적으로 단계적인 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VIII. 개발계획지역의 입지와 배경

본 지역은 강원도의 태백산맥 산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이른바 태백산지 서쪽 산간분지 지역에 해당된다. 정선군지역은 주변이 1,500m 내외의 산지로 둘러 있는데 남한강 상류에 해당되는 조양강과 그 밖의 여러 지류로 개석되고 있는 심산유곡의 산간오지이다. 특히 여량은 유명한 정선아리랑의 원유지로 행정적으로 정선군의 북면에 해당되고 있다.

한편, 여량지역은 태백산에서 갈라지는 정선선이 교통오지로 정선과 동쪽해안인 동해시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있고 북으로는 하진부를 거쳐 영동고속도로에 이르는 지역이다. 또한 그 경계를 보면 동북쪽에 명주군, 서쪽에는 평창군, 서남에는 영월군, 동쪽에는 삼척군으로 경계가 되고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탄광지인 태백시와 舍北, 古汗, 旌善이 위치하며, 북쪽의 하진부를 지나 서울에 이르는 내륙사난 토오의 요지이기도 하고 동해시와 평창을 잇는 중간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요컨대, 여량지역은 그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였었기 때문에 사회경제 발전이 뒤떨어졌었고 지금까지 가장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정선에는 국민관광지로 巖岩 약수터가 이미 개발되어 있으며, 이 밖에 화려한 화암계곡, 웅장한 화암동굴과 이색적인 여량산호동굴,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 연안의 절경들이 여량지역의 지역개발에 보조적인 배경으로 분포되고 있다. 또한 내륙 산간 오지의 곳곳에 분포하는 많은 광산도시와 광산촌락

등의 지역주민과, 결절없이 연중 찾아드는 설악산과 동해안 지역의 관광 휴양객들은 좋은 관광대상의 배경으로 간주된다.

IX. 지역의 지리적특성

개발계획지인 정선땅은 그 지리적 특성이 뚜렷하고 특이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대략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첫째, 본 지역은 내륙산간지역으로 이른바 고냉지 기후를 이루는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 즉 대부분 지역이 해발 500m 이상의 지역으로 1,000m 이상 되는 산지와 봉우리들이 곳곳에 둘러있다. 임야면적은 총 11만 ha로 전 면적의 85.6%를 점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삼림지대로 되고 있다. 그리고 표고 500m 이상의 농경지는 2,500 ha로 정선의 전 농토의 21%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년평균 기온이 10.4°C로 비교적 한냉한 기후를 이루고 있다.

둘째, 이 지역은 산지성 지형이기 때문에 논농사 보다는 밭농사가 절대적인데 총 경지의 90%가 밭농사 지대로 그 면적은 7,200ha 이다. 따라서 주작물은 주로 잡곡인데 총생산량 25,000 M/T으로 전생산량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이 지역은 산악일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무연탄의 경우는 그 매장량이 전국 매장량의 24%를 점하고 생산량은 전국의 27.3%에 달하였다. 실로 석탄과 석회암 그리고 각종 지하자원이 이 정선땅에 널려 있어 정선의 검은 다이아몬드의 땅이라는 별명까지도 지니고 있다. 넷째, 이 지역 특성의 또 하나는 지역 자체가 교통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후진적인 주민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시화의 차급도 뒤떨어졌으며, 옛 그대로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에 산지성 지형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이 때문에 새로운 문화의 물결이 파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X. 관광자원의 분포

본 개발계획의 배후지가 되고 있는 강원도 전역의 관광문화자원의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단지의 지리적 기초에서도 취급한 바와같이 이 단지 주변의 정선군내에도 수려한 자원경관이 절대적인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그밖에 이미 지정받아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관광지 주요문화재의 분포현황을 추려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표 1, 2).

표 1. 주요관광지

명칭	소재지	비고
畫水	東面 畫岩里	위장병, 피부병 특효
畫岩鍾乳窟	동면 화암리	종유석
小金江	동면 沒雲里	기암절경, 산림을창
廣大谷	동면 몰운리	폭포, 기암절벽, 절경
九美亭	臨溪面 逢山里	사계 절경 극치

표 2. 주요문화재

명칭	소재지	비고
水瑪너탑	古汗邑 古汗里	보물 410호, 석탑
숙멸寶宮	고한읍 고한리	정암사 불상을모시지 않는 범당
李端夏 內外 옷	임계면 봉산리	민속자료 4호
熱目魚	고한읍 고한리	천연기념물 73호
정선아리랑	아우라지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
뽕나무	정선읍 鳳陽里	지방기념물 제7호

XI. 기대되는 개발 타당성

첫째, 강원도의 종합개발계획과 태백산의 종합개발계획에 연계된 하위계획으로 구체화된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된다.

둘째,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던 산촌의 지역개발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산촌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농간의 격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개발사업이 된다.

셋째, 광산촌 주민의 불안정된 생활을 관광지역화에 따른 겸업장려로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고 산지촌 주민생활의 현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산간오지인 이 정선지역 중에서도 교통입지가 유리하고 더욱이 원주민 보다 外來定住民이 많은 여량지구의 정착과 안주권 형성에 이바지 된다.

다섯째, 산지지역의 특산물인 고냉지 산물 그리고 각종 지하자원 등의 부존자원들이 부각 될 수 있고 이에따라 개발전망이 밝아진다.

여섯째, 학술적인 가치가 있고 더구나 稀資洞窟의 자연학습원개발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 될 수 있다.

일곱째, 고갈자원인 광산자원에만 의존않고 자연자원을 개발이용하여 대자연속의 휴식공간지를 개발하여 지역성에 알맞는 풍토자원의 선용으로 애항심을 보다 고취시킬 수 있다.

XII. 결론

요컨대 이 정선의 여량 산호동굴은 개발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인근지역인 동면에 있는 화암동굴이 현재 개발되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산간벽지에 해당 하는 이 정선 여량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굴지역의 관광개발로 인하여 위에서 열거한 바와같은 타당성 때문에 하루속히 개발공개 되어야 하겠다.

물론 이 정선지역에는 현재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 동굴만도 25개소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관광소득증대를 목적 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훌륭한

한 동굴자원이 있다는 자량이 즉 향토를 사랑하는 긍지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굴의 개발은 절실하다고 본다.

XIII. 참고문헌

홍시환, 1978, 동굴의 이용에 관한 연구, 동굴 3

홍시환, 1979, 한국동굴의 특성과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 건대학술지 23

홍시환, 박관섭, 임문순, 전순임, 1978, 우리나라 자연동굴의 현황과 이용에 관한 연구, 건대학술지 22

홍시환, 1979, 한국의 자연동굴, 금화사

홍시환, 1990, 한국동굴대관, 삼주출판사